

## 타인 배려 선플 언행 국회의원이 앞장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11월 5일(수)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및 제7회 선플의 날 기념식'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청소년이 선정한 선플 실천 국회의원으로 2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플대상에는 강길부(새누리, 울산 울주군)의원파 심재권(새민련, 서울 강동구)의원이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선플 대상 수상한 강길부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이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회 안팎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수상한 심재권 의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플은 상대의 닫힌 마음을 열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이러한 상을 받고 보니 미안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 선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8월 30일,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4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대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선플정치언어모니터단 연수를 계기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지난 1년동안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되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 분석에 참여한 '전국 청소년SNS기자단'의 고등학생 대표 남해린 한광영고 학생은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을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로 나누어 모니터 하였는데 회의록이 생생하게 적혀있어서 모니

### 선플 국회의원 대상에 새누리 강길부 의원- 새민련 심재권 의원 수상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선정... 제7회 선플의 날 기념식 활짝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5일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및 제7회 선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터를 하다보면 마치 국회 회의장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며 "앞으로 진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은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싶었고, 선플은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는 "이번 시상식은 순수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선플 국회의원 선정이라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어른들이 실천하는 응원과 배려의 선플문화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

한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선플포럼(회장 한동권),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주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공동위원장 서상주, 김춘진) 후원으로 개최했다.

조용태 기자



안녕 우리말 상징과 기념사진

### "친구야! 우리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 활짝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 이들의 대다수가 욕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 놀랄지 않다. 실제로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94.8%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한 그 사용 이유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습관적으로' (33.4%), '친근감 표현' (25.9%) 등으로 청소년들이 욕설과 비속어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청소년 언어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나쁜 언어 습관 방지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아나운서연맹회 개최)가 9월 3일 수요일 저녁, 국립중앙박물관의 극장 '용'에서 열렸다.

"안녕! 우리말"이란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을 새롭게 만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이다.

이번 콘서트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자'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하는 800여 청소년들에게 바르고 고운 우리말의 의미를 깨닫게 함은 물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로 바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콘서트는 온 몸으로 우리말을 표현한 화려한 댄스팀 '피아이다'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비정상회담의 방송인 기욤, 장위안, 로빈 등 외국인들과 많은 아나운서들이 한글 무늬 옷을 입고 '한글, 아름다움을 입

다'라는 한글 패션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날 선보인 한글 옷은 동덕여대 의상디자인과 학생들과 교수의 합작품으로 한글을 형상화한 신비로운 분위기의 옷으로 외국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뒤이어 평소 우리말 사용에 모범을 보여 온 아역배우 오재무 군과 김소현 양이 또래 친구들을 대표해서 언어문화개선 홍보대사인 '우리말 수호천사'로 위촉되어 청소년들의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뒤이어 '친구야 바르고 고운 우리말 쓰자'라는 주제로 이 날 콘서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을 받은

한일고등학교 성친규 학생은 "감사하고 기쁘다. 바르고 고운말을 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콘서트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희범 차관님이 시상하였으며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에 놀랐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럽다."며 칭찬하였다.

인터뷰에서도 한번 더 청소년들을 칭찬하며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말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자랑스러운 언어인지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승우, 소년공화국 등 유명 연예인이 청소년들과 함께 바르고 고운 언어로 함께 노래하였으며 이제민 마술사의 '고운 말 사용 다짐' 마술 공연 등이 진행되며 의지를 다졌다.

이슬지 기자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 국회문양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사연은!

### 41년 만인 2014년 5월 2일 문양 배지 한글변경 통과

2014년 5월 2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 문양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91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 깃발과 국회의원 보람의 무궁화 문양 안에 '國' 대신 '국'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게 됐다. 글자체는 한글의 기본 틀인 돌림체를 기초로 전각(篆體)의 느낌을 살렸다.

국회 보람은 제헌국회 이래 9차례나 변경되었고, 한글로 써져 있었던 적도 있었다. 원래 국회 보람은 1950년 2대 국회 당시 한자 표기방식으로 정해졌었다. 1960년 5대 국회(1960~1961년) 때 한글 '국'으로 바뀌 1년 정도 사용했지만 1963년 6대 국회부터 한자로 되돌아왔다. 이어 1971년 8대 국회(1971~1972년) 때 한글로 다시 바뀌 1년을 썼지만 1973년 9대 국회 때부터 다시 한자 사용으로 돌아갔고 이



후 41년간 한자 문양이 유지되었다.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글문화협회 등 한글단체가 국회 보

람을 한글로 바꾸자는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지만, 반대의견도 많았다. '한자 배지가 국회의 오랜 관습이다', '한자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인다.' 등이 반대 근거였다. 하지만 보람을 한글로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2012년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8월 3일 동료의원 64명과 함께 문양을 한글 '국'으로 바꾸자는 규칙 개정안을 냈고, 2014년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등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결국 국회운영위원회가 지난달 8일 의견을 수렴해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양 한글화가 이뤄졌다.

김재민 기자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핸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통검출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문화중심 광화문에 우뚝

8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의 중심인 종로구 광화문에 하나의 탑이 새로 세워졌다. 이른바 조선어학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 모습

회기념탑이 우리나라 오랜 논의 끝에 세종대왕의 오른편 세종로공원에 건립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글학회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 '한글 마루지(랜드마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탑이다.

“올해는 우리 학회가 1942년 10월 1일, 일제가 일으킨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난을 겪은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학회는 서울시와 함께, 혹독한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말 우리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같이 전하고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조선어학회 유가족을 비롯해 김중택 한글학회 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순서는 개식사와 국민의례가 끝난 뒤 주요 내빈소개가 있었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과 김중택 한글학회 회장의 투쟁기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 한글학회와 서울시 주최 '한글 마루지' 일화

이어서 탑 제막과 함께 조선어학회 열사분들에게 한화한 뒤, 기념촬영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축사와 함께 폐식하는 순을 따랐다. 무더위와 소나기가 오가는 늦은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수많은 분이 자리를 함께해서 더욱 빛나는 자리였다. 행사가 끝난 뒤, 가장 어린 삼선중학교 2학년 신재원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짧은 인터뷰를 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에 다니는 신재원이라고 합니다.

▶조선어학회 수호탑이 세워지게 된 기념적인 날인데 참석자중에서 가장 어려 보이네요. 이런 행사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현모 선생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오늘 이 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조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앞으로라도 시간이 종종 날 때 마다 방문해서 다시금 정신을 일깨워 볼 생각입니다.

▶한말글 수호 기념탑에 헌화하실 때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말과 글이 말하자면 한 민족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지켜내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우리가 한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헌화했습니다.(박원순 시장)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인들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



한 사건. 1921년 12월 뒤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면서 조선의 말과 글의 연구 및 정리 보급을 계속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관련인물들이 검거되었던 것이다. 1943년 부가적 33명이 검거되었고, 48명이 취조받았다.  
조선어학회 애국선열 33분  
◆이운재 ◆한징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이중화 ◆이우식 ◆이인 ◆김법린 ◆김양수 ◆김도연 ◆장현식 ◆장지영 ◆장영모 ◆김윤경 ◆이석린 ◆권승욱 ◆이만규 ◆이강래 ◆김선기 ◆이병기 ◆서승효 ◆윤병호 ◆이은상 ◆정인섭 ◆서민호 ◆안재홍 ◆김종철 ◆권덕규 ◆안호상 ◆신현모 선생  
이중혁 기자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 반갑다!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 한글의 모든 것!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까지

10월 9일 한글날, 국립한글박물관이 첫 문을 열었다.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 사전 견학을 다녀왔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 건립되어 있어서 찾기 쉬웠다. 아직 개관하기 전이라 분주한 모습의 외관을 뒤로 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2층 상설 전시실로 올라갔다. 상설전시실은 3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를 주제로 연대별로 한글이 걸어온 길을 나타내며 한글의 창제와 원리를 각종 영상과 유물로 설명한다. 특히 대형 화면을 이용하여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직접 만지면서 한글 자모음의 형성 원리와 합자원리를 쉽게 익힐 수 있다.

2부는 '쉽게 익히서 편히 쓰니'라는 주

제로 한글이 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원인석보, 용비어천가 등 유품과 더불어 한글 편지, 버섯본, 그릇과 락살 등을 선보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한글이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부는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니'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정 교과서인 '바둑이와 철수',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 등을 선보이며 근현대 한글이 어떤 변화와 시도를 거쳐 왔는지 보여준다.

2층 상설전시실 이외에도 3층에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인 한글놀이터, 외국인 체험실인 한글 배움터가 마련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과거의 유물과 더불어 이를 정연두, 이지원, 함경아 등의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한글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전시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이 전시실은 내부가 알록달록하며 조형물 또한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만지면 소리가 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이 한글을 직접 손으로 표현해볼 수 있고 책상에 앉아 색연필로 색칠하면 글자가 새겨지는 재미난 활동 또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글 배움터는 외국인과 다문화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특히 한글의 자음·모음의 구조와 합자 방법을 직접 만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한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시간 정도 한글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서 느낀 점은 사람들이 한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다는 점이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조형물로 한글의 창제원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했으며 '바둑이와 철수' 이외의 옛 우리 교과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공병우 1호 한글 타자기와 같은 흥미 있는 전시를 보는 재미가 있다. 한글날 개관을 맞이하는 한글박물관. 많은 사람이 한글박물관을 찾아 한글이 걸어온 길을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김혜린 기자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



대형 화면을 통해 훈민정음을 창제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5월 31일 광화문광장에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자원봉사단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첫번째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선플위원회 한동권 미래그림 회장,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저우위보 대표)

## '100만 선플봉사단', 추모와 치유 그리고 희망

###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식' 및 선플음악회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지난 5월 3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SBS 이혜승 아나운서의 사회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0만 선플봉사단 출범식 및 선플음악회'를 2천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선플자원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6천여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표해서 안산 상록고 최우성 교사, 평택 한광여자고 이하은 학생, 서울 선플학부모지원단장 지혜원 학부모가 선플봉사단 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선플본부 민병철 이사장, 선플후원회 한동권 회장, 선플서울포럼 김종복 회장이

선언문을 전달받았다.

선플음악회에는 '불후의 명곡' 스타 실력과 여가수 '일리', 팝페라 테너 뮤지컬 배우 '박완', 히든싱어 신승훈 편 의 우승자 장진호가 함께하는 팝페라 그룹 '라스페라자'가 서늘내셔널소니 오케스트라와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는 공연을 펼쳤으며, 세계적인 팝페라 디바 '이사벨'은 학교 선플봉사단 청소년들과 광진다문화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 일으켜 주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아름다운 선율로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녕! 우리말, 언어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는 “사이버상의 무분별한 언어폭력은 국어 훼손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선플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전국 100만 선플 봉사단의 출범을 통해 칭찬과 배려의 선플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지역 간 언어문화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플자원봉사단은 학교 및 시민단체, 기업들의 선플운동 참가자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자

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플운동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지역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출범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취지의 운동이다.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선플달기 과제를 준 것에서부터 시작된 선플운동은 현재 6천여 개의 학교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선플은 535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조윤희 기자

##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2014년, 올해의 막말' 발표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는 10월 16일 '2014년, 올해의 막말'을 발표했다.

•(사)국어문화운동본부(대표 남영신)는 우리 사회의 언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과 가장 나쁜 말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올해는 시범으로 가장 나쁜 말을 뽑아 '올해의 막

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 '막말'에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저속하거나 무례한 말'과 자기 지위에 합당하지 않는 '물지각하거나 물상식한 말'을 아우른다.

• 올해는 막말을 한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올해의 막말을 선정하였는데, 부분별 올해의

막말로 선정된 말은 아래와 같다.

중고인의 막말 :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종교인이 차별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이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가장 나쁜 말로 선정하였다. '올해의 막말'에 뽑힌 말을 한 사람 가운데는 이 말을 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분도 있고, 이에 대해서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겉으로는 뉘우치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 행사에 자극이 되어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리에 합당한 언행을 하여 우리 사회의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 “언어문화 개선 위해 NGO역할 중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김구영 사무관

### 언어 의식 가진다는 것은 습관이자 나아가 삶을 바꾸는 것 배려와 존중의 언어 사용하면 자연스레 아름다운 사회로



아름답고, 품격 있고, 과학적인 우리말과 말을 지키고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실생활에서 우리말은 갈날처럼 상처를 주고 세대별로 변형이 심해져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 뿐 아니라 인터넷 언어는 그 도가 지나쳐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치욕 받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말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언어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인터넷의 영역은 갈수록 커져가고 SNS에서 청소년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 언어문화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한마음이 돼 캠페인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사업 담당자로서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영 사무관을 만났다.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 우리말에 대해 언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

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평가 받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영어 예찬론, 외국어 남용과 비속어 사용, 언어폭력 등이 확산되고 있어 언어 의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언어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습관이자 나아가 삶을 바꾸는 것이다. 올바른 언어문화를 통해 국민 상호 간에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자연스레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깨끗한 언어를 생활화하는 의식을 갖고 바른 언어 문화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캠페인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한글날은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한글·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늘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글·한국어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 언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어려운 외국어·한자어, 대중 매체의 폭력적인 언어,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등으로 인한 언어 파괴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우선 정부차원에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이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로고와 그 뜻이 궁금하다.  
- ‘안녕! 우리말’ 캠페인의 의미는 편안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하는 인사말인 ‘안녕’을 통해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새롭게 만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안녕하다’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 지난해 12월 18일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의 출범이후,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성과나 이후 추진계획, 활동 방향이 궁금하다.

- '13년 12월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 이후 '14년 11월까지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 등 3개 분야로 설정하여 국민 스스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 참여 문화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이나 선플운동본부 등 NGO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NGO들이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언어는 하나의 문화이다. 때문에 문화 분야에 정부의 역할이 많은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언어문화를 개선한다고 정부에서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시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국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 환경에서 선플운동본부와 NGO의 활동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 온 선플운동본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문화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갖는 등 국제화에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현재 100만 선플 봉사단 활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플 운동의 전국화 그리고 세계화를 기대한다.

◎ 앞으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담당자로서 청소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작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96%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언어사용은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언어폭력은 그들의 사고를 황폐화시키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전두엽)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 이성적 사고 및 판단을 못하게 하며, 성장 뒤에도 우울증이나 적대감을 불러오는 등 정서적인 발달 장애를 초래한다고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바른 언어 사용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학교, 시민단체에서 건전한 사이버 언어를 위해 활동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언어로 행복한 나라, 문화융성이 꽃피는 선진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 = 조윤희 기자



인하대 의원(왼쪽)과 청소년 대표 이하은

## 선플로 통하는 세상 칭찬과 격려 큰 힘이 돼 선플누리단 전국 청소년 대표 이하은 인터뷰

한광여자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 중인 이하은(18) 양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두 손 겹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으며 꾸준히 선플을 달며 세상 사랑을 실천해왔다. 그렇기에 이하은 양은 선플운동본부에서 선플 누리단 전국 청소년 대표로 선정되었다. 지난 5월 31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와 치유의 선플 음악회에서 선플 선언문 낭독으로 대표활동을 시작한 이하은 양을 만나 인터뷰했다.

▶ 한광여자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 중인 이하은(18) 양은 평소 친구들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두 손 겹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으며 꾸준히 선플을 달며 세상 사랑을 실천해왔다. 그렇기에 이하은 양은 선플운동본부에서 선플 누리단 전국 청소년 대표로 선정되었다. 지난 5월 31일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와 치유의 선플 음악회에서 선플 선언문 낭독으로 대표활동을 시작한 이하은 양을 만나 인터뷰했다.

▶ 함께 되었고 악플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악플이 달린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제가 쓴 선플을 통해 악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 자신의 꿈과 선플에 관계가 있나요?  
- 제 장래희망은 수확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선한 말과 좋은 말을 가르치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비속어가 섞이지 않은 말은 아이들의 정서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선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선플 누리단 전국 청소년 대표로서 각오  
- 청소년들의 대표로서 비속어나 욕을 하지 않고 선플을 널리 알리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플활동에는 일반적으로 기사에다 선플을 쓰거나, 악플을 신고하고 선플 캠페인을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선플을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플을 달 때는 선플운동본부에 들어가 선플달기를 누르고 인터넷 기사 댓글에 선플을 달고 기사의 제목과 웹주소, 자신의 선플내용을 복사하여 선플달기 게시판에 작성하면 됩니다.

▶ 선플을 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에 선플 누리단이라는 부속 동아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플을

## 선플운동본부, 환대실천 선플캠페인 사업설명회

### 배풀고 배려하여 밝은 사회를!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민병철 이사장

(사)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은 지난 8월 30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환대실천 선플캠페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민병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0년대 시험준비를 위해 미국의 친구 집에 있는데 부부가 쓰는 침실로 초대했다. 그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풀고 배려해야 상대방에게 반사가 되어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환대실천 캠페인입니다.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50% 이상이 중국인인데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의 마음을 열고 그 분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데려오면 상대방도 감동받을 것입니다. 환대실천캠페인 활동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할 여러분 모두를 위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환대실천 캠페인은 선플운동본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고 전국선플지도사협의회가 주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환대를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환대실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쌍청문 언어지킴이 '귀땀' 동네 한글 간판 전달식

쌍청문청소년문화의집 언어지킴이 청소년 동아리 '귀땀' 친구들은 우리동네 우리말 간판으로 선정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예쁜 우리말 가게라는 현판을 전달했다.

현판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깜짝 놀라시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청소년들은 현판을 전달하며 기쁜 마음과 함께 떡집 사장님의 떡을 감사히 받았다고 밝혔다.

# “선플 운동 통한 우리 시대의 상처 치료, 배려와 존중 가능한 사회로”

## 강길부 의원 (선플 大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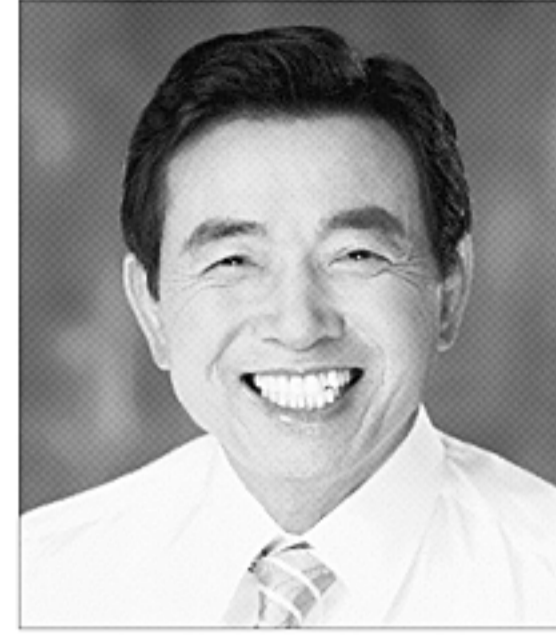
선플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국회의원 강길부입니다.

먼저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저를 선플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청소년 선플 기자단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은 물론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건강한 마음으로 몸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무기로 특별한 이유 없

이 생산된 악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선플'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울 때 늘 함께 어려움을 이겨왔었습니다. 앞으로 선플 운동본부의 선플달기 운동이 대한민국 곳곳에 확대되어 기존의 나쁜 문화를 청산하는 한편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심재권 (선플 大賞)



안녕하세요? 심재권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건전한 비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란 상대방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올바른 대화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플운동은 이러한 우리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이 선정한 선플상을 받게 되어 큰 책임감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동원 의원



석하여 국회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논리적이고 바른언어로 정책질의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정 활동상 장관과 기관장들을 질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논리적이고 바른말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자료분석과 송곳질을 하면서도 바른언어로 질의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 인략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댓글을 달아주는 취지로 전국 6천여개 이상의 학과와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은 피해 당사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배려를 갖고 성장한다면 점차 훌륭한 시민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줄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 밑거름이 될 뜻 깊은 의미의 선플신문 발간을 축하합니다.

## 김재연 의원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타인을 배려하는 말과 글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권위적이고 소통이 부족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는 듯한 모습, 귀기울여 듣기보다는 내 주장만을 앞세우는 모습이 문제시되기도 합니다. 모두 고쳐나가야 합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의 역할에서 '생각의 차이'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말이나 글은 상대방에게 심

한 상처를 주고 갈등을 키우며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차단시키고 만니다. 서로의 소통을 위한 아름다운 말과 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권력이 힘없는 약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이런 소리들까지 품을 수 있는 소통의 장, 배려의 공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욱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상처는 보듬어 안고, 좌절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사회를 위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부족한 제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저의

## 김제남 의원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신뢰를 쌓아왔던 활동이 인정받게 되어 기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이해보다는 고성과 막말, 인신공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극단적 언어사용은 현실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도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언어 사용에는 올바른 회의 문화가 부재된 국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될 국회가 먼저 아름다운 말로 모범적인 회의 문화 정착을 이루어낼 때, 국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 사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저 또한 의정활동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말을 널리 전파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운동에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뜻 깊은 상을 수상 받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타가 인정하는 청소년 여러분의 모범을 보도록 아름다운 말 사용에 책임을 갖고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제남입니다. 저를

## 김현미 의원



마무리하는 겨울에 '2014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뜻 깊은 상을 수여해 주신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과 임원분, 전국청소년 SNS기자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7년간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올바른 온라인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인 만큼 여전히 악성댓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악성댓글이 아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선플'로 건강한 사이버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누리꾼들의 몫입니다.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선플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플상을 수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플운동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옷깃에 스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 나성린 의원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 도래 이후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을 바탕으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발표하는 ICT(정보통신기술)발전지수 부문에서 4년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익명성을 무기로 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 왕따 문제와 연예인들의 자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플운동본부는 용기와 희망을 주

는 댓글달기운동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선플운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비친 국회의 모습은 막말과 호풍이 비일비재 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 사용을 생활화 하여 국민 여러분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성린입니다. 저를

## 민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먼저 선플운동본부에서 주신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올바른 말만 사용하기 위한 저의 노력을 좋게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렇다 할 윤리의식이 정립되지 않아 악플들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으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플운동본부는 삭막한 인터넷 사막에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활동을 펴보고 있습

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인터넷상의 선플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선플운동본부의 청년 여러분입니다. 선플운동본부의 한층 청년선플사이버공공의 교단과 선플누리단, 선플SNS기자단 여러분의 활동으로 더 이상 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선플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말 사용으로 항상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한다”

## 박병석 의원



청소년들이 직접 분석해서 주는 의미있는 선플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듯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치의 격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사라지지 못한 말은 한순간은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을진 몰라도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

은 사실에 근거한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이버세상에서 상대방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선플을 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바른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선플은 우리 현실과 사이버세상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합니다.

## 손인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우선,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예쁘고 뜻 깊은 상입니까. 인터넷은 새로움을 넘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상대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악플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로 많은 이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선플달기 운동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나아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우선,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예쁘고 뜻 깊은 상입니까. 인터넷은 새로움을 넘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상대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저주하는 악플로 인해 온라인이라는 공간

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로 많은 이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선플달기 운동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나아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홍준 의원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홍준입니다. 먼저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게 해준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평생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말하는 습관은 평생에 나타날 인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언어는 긍정적 행동을 만들고 부정적 언어는 부정적 행동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말, 배려하는 말을 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정 활동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바른 언어 사용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언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서구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아름다운말 선플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른말 사용으로 모범이 되는 국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혀는 칼보다 낫고 칼보다 무서운 말이라는 말이 때로는 칼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온 일병, 임 병장 사건에서도 보듯 언어폭력은 모든 폭

력의 시작입니다. 선플은 언어가 폭력화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생각 없이 쓰는 악플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악플보다 선플로 서로 칭찬, 격려하며 사는 세상으로 변화 더욱 밝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만우 의원



국회의원 이만우입니다. 먼저 2014년 선플상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국회의원으로써 앞장서서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선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과 입에도 담지 못할 많은 글들이 수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스스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례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이를 따라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소년·학생과 시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플달기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 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플운동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말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의원



140여명의 청소년 기자단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직접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건전한 언어사용, 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민병철 교수님께서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젊은 여가수의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선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근거 없는 비난과 악성 댓글은 많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있습니다. 악플은 대상이 된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갈만큼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일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의 장점인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창의적 의사소통마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플은 잘못된 의사표현과 왜곡된 자의의식을 초

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플 달기 운동은 근거 없는 악플이 당사자들에게 주는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 관심과 애정이 담긴 댓글 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에서 바른 언어사용,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착한 댓글 하나는 공감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올바른 언어사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우택 의원



우선 이렇게 의미 깊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 예절 문제가 심각한 요즘 청소년들의 선플 활동에서 받는 상이라 더욱더욱 기쁩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로 인해 모임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익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단 선플 하나가 인터넷 문화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4 선플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 '2014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선플운동본부 및 선정작업에 참여하신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원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원진입니다.  
먼저 선플신문이 창간되었다는 소식에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간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신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플운동본부에서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상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저는 국회에서 아름다운 말을 통해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찾고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악플로 인한 자살 등 많은 고통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선플신문이 사이버 인식문화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둥이 되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미래지향적인 악플 방지와 국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환경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선플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의원



'말'을 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위치에 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신중히 말하고자 노력하는 제가 청소년 여러분이 선정한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SNS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몇 글자 되지 않는 선플이 코끝을 찡하게 만들기도 하며, 거친 일상에서 잠시 미소짓게 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죽어가는 식물들

살리기도 하고,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며 관계를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많이 달수록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긍정적인 힘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플상에 선정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큰 영광입니다. 국민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으로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했다니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국회에서 착하고 고운 말 만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배려의 미덕은 더 빛을 발합니다. 선플은 단순한 착한 댓글이 아닙니다. '공감'과 '소통'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을

을 보여주는 따뜻한 행위입니다. 선플은 인터넷이라는 도구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SNS에서 관심과 위로를 찾는 시대입니다. 지켜 있는 사람에게, 이를 모를 이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 목숨까지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의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를 지역위원장 홍의락 국회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셨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쁜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하다보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말로써 서로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국회의원과 대변인 등 정치인들이 아름답지 못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에게 '아름다운 말' 상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상처주는 말, 국민이 불신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 내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부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대구북구 주민의 삶뿐 아니라, 국민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에게 '아름다운 말' 상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상처주는 말, 국민이 불신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국회 내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부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대구북구 주민의 삶뿐 아니라, 국민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의원



생활영어로 유명한 민병철 선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선플재단으로부터 광주·전남 많은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편으로 과분합니다.  
저는 항상 평소 지인들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몫을 충실히 수행하며, 법과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사람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과 비난으로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플상을 계기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국회가 분쟁과 갈등의 이미지를 벗어나, 협의와 토론의 장으로 인식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바른 언어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진하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민병철 (사)선플운동본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다 밝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인 인터넷 세상에서는 악성 댓글 등으로 사이버 폭력이 심화되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플운동본부가 실천하고 있는 '선플달기운동'은 악플로 상처 입고 고통 받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실천을 통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황

# 꼼꼼히 다져보라 안전지향 라식

# 한광 선플 동아리, 선플 실천과 홍보 앞장

## 선플 캠페인 · 선플 문자 · 선플 달기 · 선플 공모전 · 선플 누리단 활동 활발

선플이란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로 나뉩니다. 협의적 정의로는 '선의적인 댓글(positive comments)'을 의미하며 '악의적인 댓글(malicious comments)'인 '악플'에 대한 반대의 뜻과 먼저 다는 댓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한편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악플을 달던 청소년들은 현실에서도 자신을 잘 절제하지 못해 쉽게 욕설을 내뱉게 되고 어른들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표출하게 돼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선플달기 전과 선플달기 후의 언어폭력과 욕설사용의 변화를 비교 해본 결과, 선플달기 전 언어폭력을 사용했던 100명중 35명 정도가 20명 정도로 감소했고, 100명중 93명이 사용했던 욕설 또한 47명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플 캠페인·선플 문자·선플 달기·선플 공모전·선플 누리단 등이 있습니다. 선플 캠페인은 동아리 아이들이 모여 선플 피켓과 해바라기를 들고 선플뱃지와 선플 거울을 나누어주면서 선플에 대하여 알리고 선플을 징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선플 문자는 그동안 소홀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플을 다는 학생

하지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선플 공모전은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데 선플을 주제로 포어·포스터·만화·글짓기·UCC 제작 등을 해 선플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선플운동은 중·고등학교 선플누리단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각, 시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플 활동으로는 선플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시청에 '선플 자립기'를 만들어 선플을 홍보하고, 평택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선플 대항전을 주최해 선플을 더 많이 단 학교를 시상하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선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시민들이 욕설이나 악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른말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달거나 욕설을 했을 경우 가장 먼저 보고 듣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듯이 자신도 무의식중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악플을 달고 욕설을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동시에 피해를 받는 일기에 선플로 나와 이웃이 어울려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설

## 상상을 초월하는 말의 영향력

한 학생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되는지 무척 궁금하여 스승인 람비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 "선생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라고 묻자 람비는 딱 잘라 "안 돼"라고 대답하면서 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주제로 질문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겠지요?"라고 람비에게 질문하자 람비는 "그렇지 않아야 하고 말고"라며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묻는 방법의 차이다. 즉 말하는 방법인 것이다. 말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 내용이지만 대답은 다르게 나왔다.

두 번째 학생은 바로 첫 번째 학생에게 "너는 묻는 방법이 틀렸어. 이번에는 내가 가서 물어볼게"라고 달려갔던 것이다. 이 질문의 차이는 단순히 말하는 방법, 기술만의 문제일까. 질문을 할 때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물어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 하면서 살아가지는 너무도 생각할 것이 많고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많은 일들이 진행된다.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질문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거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생활을 즐기기 위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말이다. 오프라인상의 말뿐 아니라 인터넷의 말은 더 중요하다.

인터넷이 생활화 된 후 특정한 말의 확산은 순식간에 이뤄지며 한번 나간 말을 주어 담기는 불가능하다. SNS의 퍼급 속도는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인터넷이 있는 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구분이 없다.

만나서 헤어져도 인터넷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이트온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 받는다. 이쯤 되면 말을 잘못하면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도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기류를 느낄 수 있고 헤어지지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에 대한 예절이나 선순환이 되는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 인터넷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축약어 때문에 신조어도 생기고 맞춤법이 신조어 때문에 해프닝도 일어난다.

그 신조어를 모르면 기성세대가 되고 알면 신세대가 되어 일부러 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하다가 습관이 되고 마구 말하다보니 행동도 그에 맞춰 가게 된다.

말미전 연예인 남모씨가 콘서트 중 관객에게 반말을 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당시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며 생각이 짧았다. 불쾌했던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그가 팬들을 편하게 얘기하는 마음에서 말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밝히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말 파문은 연예인 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S대학 총장이 교수들에게 한 막말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거칠고 예절이 없는 말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순식간에 없애기도 하고 비난과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인터넷 시대에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 하지 않는다면 말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말의 가벼움에 초고속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면 그 말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더욱 이자까지 달아서 돌아온다. 고운 말이 돌아다니는 사회와 거친 말이 돌아다니는 사회를 상상해 보라. 바로 그것이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그 나라의 국격을 만들게 된다.

## 인터넷의 위력만큼 중요한 SNS교육

최근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한 미주리주 사법 당국의 불기소 결정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전역으로 확산된 데에는 인터넷과 SNS의 역할이 컸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시위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평화를 지키자'는 흑인 인권운동가들의 호소가 큰 위력을 발휘하면서 다시 미국의 인종갈등에 대한 홍역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시위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지구촌에 '생중계'되면서 해외에서도 지지 풍조 시위와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인터넷과 SNS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급시키는 역할을 한다.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싸늘하게 식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미주리주 사법 당국의 불기소 결정에 분노한 시위가 미국전역으로 확산되고 시위대가 신속하게 조직될 수 있었던 데는 SNS의 역할이 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처럼 SNS의 역할은 의견을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일면 무척 긍정적이 되겠지만 올바른지 않는 일면 그 여파가 뜻하지 않는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하는 말들은 그 여파가 큰데 비해 지금까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하는 일에 소홀하여 앞으로는 인터넷 언어 대책과 함께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언어는 인격을 만들고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번지는 인터넷 언어의 품격을 다듬기위해 초중고의 인터넷 언어 교육 강조는 많이 하여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선플언어문화개선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민병철	편집인·여영미	인쇄·이철구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135-9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윙창빌딩 15층	
대표전화 02)535-3449	팩스 02)6008-3377	
편집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칼럼 | 양길석 / 중앙대학교 대학원

## 누군가 억지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악플러' 습관

"이번 과제는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의 기사에 선플을 10개씩 달아 주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대학교 신입생이던 나는 익히 들어온 민병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살짝 설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교양 영어인 줄 알았던 강의는 Global Leadership 강의란 이름으로 소개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신 여러 사회적 활동들에 대하여 설명하셨다.

같이 수업을 들던 동기들은 이내 실망하였고 집중력을 잃고 딴 짓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시간부터 시작된 본 강의는 생활회화를 잠깐 배우고 다시금 여러 사회 활동과 덕목들에 대하여 배웠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본래의 교양영어 강의라기보다 사회활동이나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 한가지 사건이 터졌다. 악플에 시달리던 여자 연예인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뉴스가 나왔다. 그 날의 강의는 왠지 교수님의 목소리가 결단에 차 있었었던 것 같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악플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에는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인터넷

으로 뉴스를 접했기에 다들 말이 없었다. 악플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폭력이고 살인이며 범죄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을 달아줘야 합니다. 선플이란 단어, 알아요? 선한 댓글이란 뜻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번 과제는 한달 동안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의 기사에 선플을 10개씩 달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교양 영어 강좌의 과제가 선플을 달아주는 것이라니. 나 또한 멍하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솔직히 당황스럽기 까지 했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과제가 생각이 났다. 한달이란 시간이 있지만 어차피 인터넷을 하는 김에 과제까지 끝내버리자는 생각으로 뉴스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과 같은 좋은 뉴스를 찾아보았다. 그냥 흥미와 재미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는 몰랐는데 과제라는 생각으로 살펴본 기사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기부나 봉사를 하는 착한 연예인들의 기사에 말도 못할 악성 댓글들이 달려있던 것이다.

가중스럽다는 글부터 이유도 없이 욕하고 멸시하는 글들, 더욱이 그 가족까지 욕하는 글들을 보면서 이런 글을 읽어온 연예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

했다. 그들에게 응원하고 칭찬하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이 줄어들까 고민하면서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생각하고 쓰기 시작했다.

댓글을 등록하고 나서 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댓글에 비 공감과 신고가 늘리고 있던 것이다. 이만큼이나 지금의 인터넷사회가 어떻게 몰려다니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는 교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습관. 그것이 그 당시 악플러들이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하며 그에 필요한 응원과 격려를 댓글로 썼다.

역시나 댓글을 등록하자마자 수많은 비공감과 신고를 받았지만 내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바뀌겠구나.' 과제를 받은 그 날 나는 많은 생각의 변화와 함께 과제를 마쳤다.

하지만 선플달기는 끝이 아니었다. 교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셔서 억지로라도 달게 하신 선플이 어느새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플을 달게 되었고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사실 선플에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무조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 기고 | 남혜린 / 한광여고

## 선플? 선플! 언어를 바로잡다

21세기인 지금은 거리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문명의 빠른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예절을 잊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수많은 많은 정보들로 가득한 네트워크에서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익명성으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에 컴퓨터 화면 뒤에 숨어 활동하는 사람들. 특히, 초·중·고의 청소년들은 더욱 자신이 보이지 않기에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곤 한다.

우리는 이런 사이버상의 악성댓글을 악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악플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고통 받고 있다. 악플로 인한 피해자로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가수 유니스, 장다빈씨 등 여러 연예인이 있지만 이것은 수면위로 드러났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일 뿐, 수면아래에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무뎠다. 악플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변함없이 있다. 악플 피해 사례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

하기위한 노력은 거의 미미했다.

악플의 활성화는 사이버 내에서만이나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에서 욕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작은 사소한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증가했다. 학교에서 마주칠 때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한 사람을 제물삼아 비방하거나 체면어플의 그룹채팅에 초대하여 한사람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욕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학교 밖의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악플과 학교폭력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자 중엔 악플을 달아냈다고 하는 사람이 90%를 넘었으며 피해자조차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것으로 풀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는 댓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선플달기운동본부가 생긴 것은 2007년이며, 선플을 활성화시키고 악플을 없애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플이란 말이 생소한 사람들이 많다. 선플을 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선플을 달고 있다는 사람들을 쉽게 보는 것이 어렵다. 선플은 주변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칭찬, 격려 등을 해주는 것. 사이버 상에 걸지 않은 60자 이내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선플을 달면 악플과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울산지역 학생들이 선플달기 운동 전후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선플을 달기 전 언어폭력의 피해율이 40.7%(12년 2월)에서 선플을 달고 난 후 5.6%(12년 10월), 2.0%(13년 2월)로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통계자료를 통해 선플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선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선플의 중요성을 알고 선플캠페인, 선플문자, 선플달기, 선플공모전 등을 통해 선플을 활성화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선플누리단이 활동하고 있다.

선플달기는 인터넷 뉴스나 여러 매체에 선한 댓글을 달고 난 후 주소와 내용을 복사하여 선플달기운동본부에 올리거나 하면 되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20개당 1시간씩의 봉사시간이 제공된다.

한광여고고등학교 선플누리단 소속이며 전국선플누리단청소년 대표 이하의 양은 "악플을 달거나 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선플이 활성화되어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앞으로 선플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 안녕! 우리말

[www.urimal.kr](http://www.urimal.kr)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 쉬운 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회원단체

